

EIB의 드론 프로젝트 금융지원 가이드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
김현진 (maxnlio@kdb.co.kr)

- ◆ EIB는 운송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·디지털 전환 추진 과정에서 드론 등 UAM 분야의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'22.1월 '드론 프로젝트 금융지원 가이드'를 발표
 - 동 가이드는 '22.4Q에 예정된 EU의 '드론 전략 2.0'에 앞서 금융지원 가이드 역할 수행
- ◆ 우리나라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구축 등 정부정책을 견인하는 차원에서 정책금융 등 금융지원이 병행될 필요

□ 유럽투자은행(European Investment Bank, 이하 EIB)은 역대 드론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해 '22.1월 '드론 프로젝트 금융지원 가이드*'를 발표

* EIB('22.1월), "The EIB guide to finance for drone projects"

- EIB는 운송 부문에서의 탄소중립 달성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'도심형 항공 모빌리티*(Urban Air Mobility, 이하 UAM)'에 주목
 - * EIB는 도심, 교외에서 제공되는 지능형 공중 운송 서비스 또는 기능으로 UAM을 정의
 - UAM은 온실가스 감축 및 스마트 운송체계 구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린·디지털 전환 등 EU의 중장기 정책과 부합
 - 특히 드론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Supply Chain의 주요 운송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농업, 건축,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*
 - * EU 집행위원회는 UAM이 향후 20년간 15만에서 20만개의 역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
- 이에 EIB는 '드론 프로젝트 금융지원 가이드'를 통해 드론 프로젝트에 대한 단계별 점검사항과 금융지원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역대 UAM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
 - 최근 글로벌 UAM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*됨에 따라,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역대 드론 프로젝트 평가기준 및 금융지원 마련 필요성이 대두
 - * Morgan Stanley('19)는 글로벌 UAM 시장이 '20년 70억달러에서 '40년 1.5조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
 - 동 가이드는 '22년 4분기 발표 예정인 EU의 '드론 전략 2.0*(A Drone Strategy 2.0 for Europe)'에 앞서 UAM 분야의 금융지원 가이드 역할을 수행할 예정
 - * 유럽 그린딜('19.12월)의 세부 정책인 '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운송전략(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 Strategy)('20.12월)을 통해 수립될 EU의 UAM 전략으로, 드론의 기술적 발전 방향 및 상업화 과정에서의 규제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

□ 동 가이드는 드론 프로젝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프로젝트의 ①준비 및 ②실행 단계에서 업무 수행자가 점검해야할 사항 및 활용가능한 금융지원 수단을 제시

- ①준비 단계는 프로젝트의 비전, 전략, 타임라인 등을 확인해야 하며, ②실행 단계는 프로젝트 실행 이후의 모니터링, 사후관리 방식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
 - EIB는 동 가이드를 통해 단계별 점검사항 등을 활용한 사업계획서(Business case) 작성 가이드라인도 제공

프로젝트 단계별 주요 점검사항

구분	내용
① 준비 (Preparation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프로젝트 비전, 기회요인, 시장상황, 정부정책 등 내용 파악 ■ 프로젝트의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여부 등 ■ 기술, 인프라 등 솔루션 구축상황 점검을 통한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파악 등
② 실행 (Realization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계약체결 여부 확인, 기술·서비스 등의 실증을 통한 안전성 점검 등 ■ 프로젝트 관련 기술, 인프라 등의 작동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 등 ■ 성과 측정 시스템을 통한 향후 프로젝트의 개선 가능성 등

자료 : EIB('22.1월), "The EIB guide to finance for drone projects"

- EIB는 드론 프로젝트 진행중 활용할 수 있는 그룹*내 금융지원 방안도 명시
 - * EIB(European Investment Bank)와 자회사인 EIF(European Investment Fund)로 구성
 - EIB는 InvestEU 프로그램*을 통해 혁신기업을 비롯한 중소·중견기업 등의 드론 프로젝트를 지원하며, EIAH**를 통해 기술, 정책 등 관련 자문서비스***를 제공
 - * 기존 역내에서 운영되던 14개의 프로그램을 통합한 EU의 신규 금융 프로그램('21년~)으로, 1) 지속 가능 인프라, 2) 리서치·혁신·디지털화, 3) 중소기업, 4) 사회적 투자 및 기술 분야를 지원
 - ** European Investment Advisory Hub : EIB 그룹, EU 집행위원회, 역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가 집단으로, 향후 InvestEU Advisory Hub에 편입될 예정
 - *** 공공분야의 프로젝트는 무상으로 제공되며, 민간분야 프로젝트의 경우 조건에 따라 비용책정
 - EIB는 EIF 및 역내 중개금융기관을 활용한 간접 방식의 금융지원*도 병행
 - *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스타트업, 중소기업은 EIF를, 중견기업 이후는 중개금융기관(은행)을 주로 활용

□ 우리나라의 경우도 드론 등 UAM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책금융 등 금융지원 필요성이 요구됨

- 정부는 '한국형 도심 항공교통(K-UAM) 로드맵'('20.5월), '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 운용계획'('21.12월) 등을 통해 UAM 상용화를 위한 비행 실증 방안 및 관련 제도 마련 등을 추진
 - 한국형 UAM의 경우 향후 발전정도에 따라 '40년까지 약 11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전망
- 이에 드론 등 UAM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견인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정책금융 등을 활용하는 금융지원 방안이 병행될 필요